

문재인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 신고에 이어 환담을 갖고,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방어체계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 왔고, 방역 물자를 전달하거나 재난 시에는 국민들을 수송해서 무사 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리, 숙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박인호 총장은 “우리 공군은 2012년 영국 에어쇼에 참여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때 영국의 ‘레드 애로우스(Red Arrows)’ 에어쇼를 보며, 영국의 존슨 총리에게 한국의 블랙이글스는 비행을 통해 G7도 알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것을 듣고 공군 조종사에게 실제로 가능하겠냐고 물었고, 조종사로부터 4대의 비행으로 G7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덕암 칼럼] 말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거다

지난 6월 30일 화성시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개원식을 열었다. 2011년 7월 사업을 시작한 지 꼭 10년 만이고 전국 최초로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등 인근 지자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이다.

2010년 6월 2일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김철민 前 안산시장이 야심 찬 계획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임기가 시작하면서 장소 선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고 2010년 12월부터 본격 추진한 이래 2013년 7월 전면 백지화까지 약 3년 동안 양상동 추모공원 사업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었다.

대대로 농사만 짓던 농민들과 겨우 지역 주간신문에 불과한 필자의 연대는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 연일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말리는 게 아니라 여차피 하려면 형식적인 절차로 땀질하지 말고 지금의 시민들에게 찬성을 구한다면 그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위의 조사로 하나 둘씩 사업의 투명성이 약해지자 뒤늦게 방관하고 묵인했던 언론들이 합세했고 결국 3년 만에 해당 사업은 막을 내렸다.

덕암/김근석

전남도-경기도, 재정분권 강화 등 공동 노력키로

전라남도청에서 2021년 전남·경기 상생협력 회의’를 열어, 지역 균형발전 기조 속에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재정분권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키로 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공동합의해 의미를 더했다.



전남도-경기도, 재정분권 강화 등 공동 노력키로

김영록 도지사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합의사항 외에도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 협력을 강화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방송 출연해 경남 지역 내 다양한 판촉행사 안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행사 홍보방송인 ‘온에어 뉴스’에 출연해 경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판촉행사이다.

위로 극복하고자 지난해 처음 개최됐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 위주로 진행된다. 초특가 할인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국적으로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이다.

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판매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경남에서는 하동의 녹차명관길, 남해의 미니단호박, 통영의 죽인절미, 산청의 도라지정 등 4종이 3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판매된다.

서구, 석남복지 도시숲 수경시설 새 단장...야간 명소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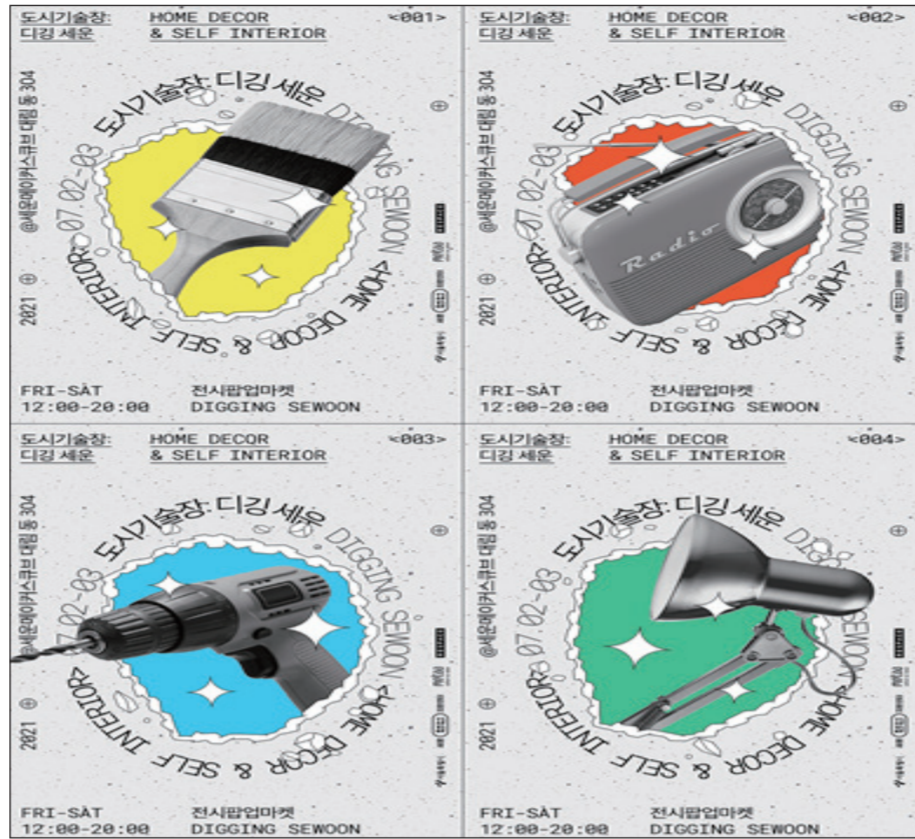
최광용/기자

서울시, 2030세대를 위한 장터 '도시기술장: 디깅세운' 연다

스스로 집꾸미기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를 위한 전시형 반짝 장터(팝업마켓) 행사

서울시는 오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세운 공중보행길 메이커스큐브 304호에서 2030세대를 위한 인테리어 전시형 반짝 장터(팝업마켓) '도시기술장: 디깅세운'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019년 열린 도시기술장은 '기술+예술+마켓', '열린 작업장', '스텝 투어', '글로벌 포럼' 등 여러 부문으로 구성되어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도시기술장은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다.
 이번 도시기술장도 세운일대 기술자, 상인들과 함께한다는 행사의 취지는 동일하다. 종전과 다른 점은 '도시기술장:디깅세운'의 경우 인테리어에 초점을 맞춰, 5명의 개성 있는 SNS(누리소통방) 인플루언서(유명인)가 세운상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인테리어 제품들을 찾고, 구매 수요가 있을만한 제품들을 엄선하여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제품의 수집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5인이 담당하였다.
 중고풍 인테리어 소품 수집으로 알려진 비슬림, 작은 공간을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가성비 좋고 특별한 인테리어를 제안하는 강동혁, 음악과 여행, 그리고 아날로그한 취향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정혜윤, 아기자기한 골동품 수집을 통해 독특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선보이는 구세계, 디스크,펍 음악의 매력을 전하며 목적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소개하는 디제이 멜란이 세운에 모였다.
 김형석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은 "세운상가 일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소개하는 등 산업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세운상가 일대 상점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2030세대들에게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국무총리상 수상

마포구는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202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포상' 심사 결과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센터장 홍진주)는 지역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으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약 326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으며 이들의 기업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그 중 중간지원조직인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활발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민-민, 민-관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해 사회적 경제 정책인프라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또한 구는 매년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해 많은이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지난

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랜선 박람회로 운영해,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마포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및 지원조직인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강화군, 소규모·가족단위 여름 여행지 추천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강화도에서 마음껏 즐겨봐~”

올 여름은 비대면의 시대 소규모·가족단위 관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강화도를 즐겨보자.
 강화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피하고 소규모·가족단위 관광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해안도로 드라이브 ▲원도심 골목여행 ▲강화도 숲길여행을 추천했다. 바다가 아름다운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도는 새로운 활력을 선물할 것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원도심을 찾아 고려시대부터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 이야기를 즐기며 탐방하기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보자. 바다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고 숲길을 천천히 걸어도 좋다.
 [서쪽 해안도로 드라이브... 아름다운 낙조와 서해 갯벌]
 '외포리~장하리 일몰 조망지'까지 이어지는 강화 서쪽 해안도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해가질 무렵 잠깐 차를 세우고 수평선 너머 낙조를 보자. 황홀한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훌륭한 사진을 담을 수 있다.
 각종 텃밭과 제철 수산물 등을 살수 있는 '외포항 텃밭시장', 서해와 건너편 석모도의 풍경이 아름다운 '건평항'을 지나면, 밴댕이 요리 특화항구인 '선수포구 밴댕이 마을'을 만난다. 밴댕이 마을에서 차를 세우고 데크길을 걸으면 소원을 이뤄준다는 소원바위와 갯벌 내음 가득한 세계 5대 갯벌을 느낄 수 있다. 차를 몰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장하리 일몰

조망지'에 닿는다. 일몰 조망지에서 붉은 노을로 물든 서해의 섬들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 고려시대부터 1970년대 산업화기 역사체험]
 강화군 '강화 원도심 스토리워크(원도심 도보여행)'가 '2021년~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축조된 강화산성을 중심으로 용홍궁 공원, 성공회 강화성당, 조양방직, 소장체험관, 강화 실감형 미래체험관 등 골목 사이사이를 걸으면서 고려시대부터 1960~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관광지로 새롭게 개관한 '소장체험관'과 '고려궁지'를 추천한다.
 '소장체험관'은 인스타그램 등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1938년 지어진 한옥 건물과 꽃과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이 있다. 새롭게 개장한 소장기념품 전시관에서는 소창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고려궁지'는 고려시대에는 왕궁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강화의 지방 행정관서와 궁궐 건물이 자리를 잡았다. 강화의 궁궐은 행궁과 장녕전, 난전, 외규장각 등이 있었으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 지금은 강화유수가 업무를 보던 동헌, 유수부의 경력이 업무를 보던 이방청, 외규장각 등 유적이 남아있다. 아이와 함께하면 좋은 곳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강화도 숲길... 가족과 함께 가볍게 트레킹]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족들과 함께 '마니산 치유의 숲', '광성보', '석모도 수목원'을 찾아보자.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아이들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마니산 치유의 숲'은 마니산 등산로 입구에 소나무 피톤치드 숲길로 조성되어 있어 여름에도 힘들지 않고 찾을 수 있으며 숲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신미약요 등 격정적인 '광성보'는 한적한 공원으로 조성 되어 있다. 강화와 김포를 사이에 둔 염하강의 경치를 감상하며 소나무 숲길을 걷기 좋은 곳이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되어 있는 '석모도 수목원'은 석모도교를 통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과 함께 나무 그늘을 즐길 수 있다.

김종남/기자



종로구, 초여름 밤 수놓을 가곡의 향연 '홍난파 가곡제'

종로구는 7월 3일 19:00부터 홍난파 가곡 앞 야외무대(종로구 송월 1길 38)에서 '2021 홍난파 가곡제'를 개최한다.
 이번 가곡제는 근대음악의 효시 난파 홍영후 선생의 서거 8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종로구와 (사)홍난파의 집이 주최·주관하고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행사다.
 그간 홍난파 음악 발전을 위해 힘써 온 백석대 윤양로 교수의 해설, 특유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세련된 퍼포먼스로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프라노 이혜지, 국제성악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며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정훈 등이 출연한다.
 뿐만 아니라 강진희, 이다미, 이은희, 신진희, 최혜영, 신동아 등 여성성악가들로 구성된 중창단 KWPC와 비전공자들이 이루어진 브라스 밴드 구세군 영연영문악대가 출연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가곡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관람 인원은 사전 예약한 50명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많

은 주민들이 어디서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종로tv 유튜브 채널 및 구성 홈페이지를 통해 7월 5일(월)부터 공연 실황을 무료로 공개하고자 한다.
 가곡제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사)홍난파의 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 종로구 흥파동에 위치한 홍난파 가곡은 1930년대에 지어진 서양식 벽돌 건물로 작곡가 홍난파 선생이 타계하기 전까지 6년을 거주한 곳이다.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90호에 지정되었으며, 홍난파 선생과 관련된 자료 전시 외에도 하우스 콘서트와 동요 교실 등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해 왔다.
 김영중 구청장은 "가곡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날들을 보내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근대 음악의 효시인 '봉숭아' 등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부평소방서,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



부평소방서는 2일 주말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호우란 일반적으로 큰비라는 뜻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말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수량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수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1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사장, 하천변, 계곡 등 위험장소 접근 하지

않기 ▲무리하게 침수지역이나 하천 다리 차량으로 건너지 않기 ▲가로등·신호등·교압선 등 감전에 주의하기 ▲집 밖으로 대피 시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기 등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하여야 한다.
 강창덕 대응총괄팀장은 "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며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지속적인 수방장비 유지관리 등 사전대비태세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강동구,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강동구가 7월 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해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과워코리아가 주관하는 상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인물, 기업, 기관 등을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강동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슬로건으로 △노동 △교육 △친환경 △스마트를 미래경영 키워드로 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청장 제1호 공약사항으로 설치한 전국 최초 직영 운영의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전국 최초로 개관한 3D 가상 원격수업 플랫폼 강동 E-스튜디오, 민·관 협력의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체계 구축 등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보내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근대 음악의 효시인 '봉숭아' 등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시대 열린다... 오세훈 시장 민생·치안 중점과제 점검

2일 자치경찰 사무 수행 현장 서울경찰청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 행사'

오세훈 시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1.)을 맞아 2일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현장인 서울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를 갖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및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도 참석한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을 통해 추진할 민생·치안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분야 등 자치경찰 업무담당 유공자 5명에게 시장표창도 수여한다.

시장 표창을 받는 경찰관 5명의 주요 공적은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조치, 여성청소년 성범죄 예방 등 생활안전 기여, 각종 다중운집 행사 교통안전 확보, 자치경찰제 추진 등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등 자치경찰 사무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솔을 받아 수행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동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아동·여성·청소년 등), 교통, 지역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

요 정책의 심의·의결,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력이 필요한 세부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강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겨찾는 공간이지만 코로나 이후 한강공원 내 취식·음주 사례가 증가하고, 최근 대학생 사망사고(4.30.) 발생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시 행정인력이 주로 순찰·계도 업무를 맡고, 사고발생시 경찰이 투입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와 경찰이 함께 순찰·단속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일 취약시간대 1회 이상 합동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지역안전경찰(CSO)을 집중 배치해 도보순찰활동을 전개한다.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안전 인프라를 추가 조성한다.

시 자체적인 조치로는 질서유지

단속 전담공무원(24명→146명 *122명↑)과 기동순찰대(4명→54명 *50명↑)를 각각 확대 운영한다. 한강공원 내 시민통행이 잦거나 조명이 어두운 안전사고 취약지역 155개소에 연말까지 CCTV 2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펜스, 조명 등 안전 인프라를 개선한다.

지역안전경찰은 골목길·공원·원룸·학교 주변 등 순찰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불안요인에 대한 주민 의견을 분석, 112 순찰 강화 등 지역 내 처리 가능한 내용은 즉시 해결토록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정밀방법진단이 요구되는 사안 등은 지자체와 경찰서 범죄예방담당팀(CPO)이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보·공유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강공원 특성에 맞는 별도의 순찰대인 '한강공원순찰대'(가칭)를 신설한다는 목표로 경찰정원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11개 한강공원을 시간대별로 정기 순찰하고, 주·야간 시간대 집중 순찰하는 역할을 맡고, 주취 소란, 폭력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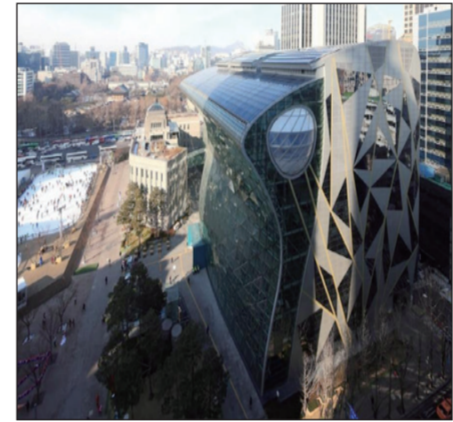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서 5월12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MOU를 체결해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

책」(3대 분야 총 14개 세부과제)과 관련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간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실무 TF팀을 구성, 3대 분야 ①대응 시스템 개선 ②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③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총 14개 세부과제로 수립했다. 핵심은 학대 아동 조기 발견,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 대처하는 것이다.

특히,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로 5건, 아동학대 신고 16건, 상담 등 복지서비스 연계 2,094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광수/기자



경남도,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844개소 긴급점검완료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점검으로 도민 불안감 해소

경상남도는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참사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시군·감리자 합동으로 도내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내 해체공사장 중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4개 층 이상의 대형해체현장은 총 31개였고, 그중 17개 해체현장은 대부분 해체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14개 해체건축현장과 813개의 소규모 신고대상 해체건축현장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광주 건물 붕괴참사로 생긴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해체계획서상 주변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안전 확보방안에 구체적이지 않거나 누락, 해체방법의 무단변경, 공사장 안전 울타리 설치 불량, 안전요원 배치 미흡, 살수기 미설치 등 총 30여 건이었다.

그중 비계 고정되지 않은 해체건축물은 고정 후 해체토록 공사를 중지했고, 구조안전 검토 없이 지상해체에서 옥상장비탑재 해체로 해체방법을 무단 변경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

지 및 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 해체공사법규 준수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 외 안전 울타리 보강 및 안전요원 배치, 살수기 설치 등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협회(경남건축사회, 건설기술인협회)에 해체계획의 사전검토와 감리강화를 요청했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주감리의 필요성, 해체공사 표준지침서 부재, 불명확한 감리대가 적용기준, 착공신고 도입 필요성 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적된 미비점은 보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건축안전 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추진 중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의 안전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이 일원화되어 신속한 조치와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광수/기자

수원시 장안구, 식중독 예방 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 실시

수원시 장안구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2021년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현장점검'을 지난달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안구의 정기 지도점검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식기·행주·도마 등의 살균세척 여부 ▲식재료의 유통기한 및 보관 적정온도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조리실의 청결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중 42개소는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단독 점검했으며, 4개소는 구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했다"며,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사고와 전염병 발병

보건복지부 1차관, 경로당 방역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7월 1일 14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가회경로당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 일상회복의 현장을 둘러보며, 경로당 관리자 및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추이에 따라 지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었으나, 어르신의 일상회복을 위해 6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적극 운영하도록 하였다.

6월 29일 현재 전국 경로당 약 67,465개소 중 약 67%인 45,301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난 5월 기준에 비해 20,333개소(약 30%) 운영하는 것

과 비교할 때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방문한 가회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중이며, 현재 지자체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예방교육 및 명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 등 준비중이다.

양성일 1차관은 경로당 어르신을 만난 현장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였다.

다행히 노인시설 집단감염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어르신들과 노인시설에 우선하여 실시한 백신 예방접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였다.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 이용하실 때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거듭 당부하며, 주변에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홍보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안전한 경로당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지자체 및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노력해 주셔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최광수/기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김상호 하남시장, “아동친화도시 인증 위해 최선”

김 시장, 1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선언식 참석

김상호 하남시장은 1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 및 선언식에 참석, ‘아동친화도시 하남’ 추진방향을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화성시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및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기구로, 하남시를 포함한 95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행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사례 공유, 협의회 임시총회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25주년 기념 선언식으로 진행됐다.

협의회 단체장들은 선언식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아동친화도시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하남시가 시민이 좋아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평생학습도시, 공정무역도시, 여성친화도시에 이은 네 번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불평등과 차별 없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시는 비전 실현을 위해 ▲존중받을 권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와 놀 권리라는 5대 목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상호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공적



자들이 더 분발하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더해진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고, 주어진 권리만이 아니라 누려야 할 권리까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아동친화도시 조성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정동희기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XR 부문 ‘비욘드 리얼리티’ 18일간 일정 돌입!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신터에서 XR 부문 ‘비욘드 리얼리티’(Beyond Reality)의 전시 오프닝을 가졌다. BIFAN 정지영 조직위원장과 신철 집행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김경욱 사장, 백정선 여객본부장, 한국문화재단의 이승태 경영이사, 루도빅 기요 프랑수아 문화원장, 부천시 이용철 관광진흥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행사를 갖고 오는 7월 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개막 행사는 BIFAN 김종민 XR 프로그래머의 전시 소개로 문을 열었다. 주요 인사들의 테이프 커팅 및 함께 개막식을 마친 뒤 전시 공간을 함께 탐방하고, ‘나무’ ‘소요산’ ‘레드 아이즈’ 등의 작품을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비욘드 리얼리티’는 BIFAN이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초로 2016년에 시작,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올해는 ‘바오밥 스튜디오 특별전’과 ‘XR3’ 한국 전시, ‘BIFAN x Unity Short Film Challenge’ 수상작과 한국문화재단이 제작한 실감콘텐츠 상영회 등을 마련했다.

공식 선정작은 39편이다. 그동안 끊임없는 상상력으로 XR 콘텐츠의 지평을 넓혀온 ‘바오밥 스튜디오’의 작품 ‘중이 새’ ‘나무’ ‘바바 야가’ ‘크로우’ ‘캠프 불’ 등 5편은 특별전 형태로 소개한다.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김진아 감독의 ‘소요산’과 이승우 감독의 ‘레드 아이즈’ 등 대표적인 한국 XR 작품도 포함돼 있다.

‘XR3’는 칸영화제 XR과 뉴미디어 영화제 등이 공동 기획한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BIFAN은 ‘XR3’ 전시의 파트너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이번 전시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협력 파트너인 전 세계 국가

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XR3’ 전시는 한국에서는 BIFAN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칸영화제 개최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스튜디오 특별전 및 ‘XR3’(칸영화제 XR·뉴미디어영화제 기획) 한국 전시 등 80여 편의 XR 작품을 7월 18일까지 체험할 수 있다.

신철 BIFAN 집행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욘드 리얼리티’ 전시를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갖게 돼 무척 설렌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프랑수아 문화원, 올해에 함께 하는 한국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올해 공식 선정작과 ‘XR3’ 전시 콘텐츠 등 뛰어난 작품들의 신비로운 영상세계를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확장현실(XR) 기반 미디어 전시에 이어 올해 역시 ‘비욘드 리얼리티’ 전시를 개최해 매우 기쁘다”며 “여객 및 국민을 대상으로 XR 콘텐츠의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시작 80여 편은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예약 신청은 BIFAN의 비욘드 리얼리티 홈페이지의 예약 메뉴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동시간대 관람객은 최대 30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제25회 BIFAN은 7월 8일부터 1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한다. 극장 중심의 오프라인 상영은 15일까지, 온라인 상영은 OTT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 3일 연장한 18일까지 진행된다. 부천아트벙커B39(부천시 삼작로 53)에서는 공연 및 특별상영, 토크·전시 등의 관객·시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순희기자



정동희기자

평택시립 비전도서관, 2021 길 위의 인문학 운영

평택시립 비전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21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8월부터 기구변화를 주제로 2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독서·토론·탐방(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자생적 인문 활동 확산 기여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비전도서관에서 진행하는 2021 길 위의 인문학 ‘절기인문학, 평택이 철들다’는 1차 민화, 2차 기후 변화, 3차 한글을 절기와 엮어 강연, 전시, 체험, 탐방을 진행한다. 2차 프로그램은 이지유 작가의 ‘24절기와 기후변화 이야기’ 강연을 시작으로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의 ‘환경을 살리는 숲 이야기’ 강연과 천리포 수목원 탐방도 떠난다. 비전갤러리에는 평택환경행동 단체와 협력해 평택의 환경사진도 전시한다.

길 위의 인문학 2차 프로그램 ‘기후변화, 절기를 통해 엿보다’는 전화,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비전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주기자

2021. 8. 5(목) - 9. 2(목)

대상 시민 누구나

접수 [강연 I] 7. 8(목)부터 / 전화, 방문, 인터넷 [강연 II] 8. 6(금)부터 / 전화, 방문, 인터넷 [탐방] 8. 6(금)부터 / 인터넷(1인당 1개의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문의 031-8024-5476~7

구분	주제	강사	일시	장소	대상	내용
강연 I	24절기와 기후변화 이야기	이지유 (작가)	8월 5일(목) 19:00~21:00	비대면	시민 30명	환경의 변화가 절기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강연 II	평택환경사진展	-	8월 6일(금) ~8월 24일(토)	비대면	시민 누구나	환경 사진 전시 (주최·평택환경행동)
강연 III	환경을 살리는 숲 이야기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	9월 1일(수) 19:00~21:00	비대면	시민 30명	나무의 생애와 역사 등 우리 나무의 숲에 대해 알아보기
탐방	천리포 수목원 탐방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	9월 2일(목) 09:00~18:00	천리포 수목원	성인 20명	

* 탐방 일정은 참여자 확정 이후 공지해드립니다.
*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탐방 일정은 변경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탐방 신청자는 강연 I, 강연 II 필수 참석이며, 강연 미 참가 시 탐방은 취소 처리합니다.
* 강연 접수 주소는 당일 오전 중 보내드리며, 참가자 확인을 위해 본인 인증으로 접수해주세요.

인터넷 접수 방법 ① 비전도서관 홈페이지(www.ptlib.go.kr/aiib)접수 ② 로그인(회원 가입 필요)
③ 운영 프로그램 ④ 강사/행사안내-신청 ⑤ 프로그램명 클릭 ⑥ 신청하기 클릭
⑦ 신청서 작성 ⑧ 신청완료 클릭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시행 평택시립비전도서관

김포시는 관내 유아~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 3시에 총 8회 진행되는 교육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함께 Zoom을 통한 화상참여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과의존 상태 진단을 해보는 이론 수업과 집으로 배송되는 집콕 만들기키트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없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 실습 수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본 프로그램은 김포시가 건강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하여 디지털배움터와 관내 사회적기업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업 만족도에 따라 추가 개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고양시 도서관센터, '도서발굴단 뉴스레터' 운영

고양시 도서관센터는 오는 7월 9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북큐레이션 서비스 '도서발굴단 뉴스레터'를 운영한다. 도서발굴단은 고양시 도서관 사서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좋은 책을 발굴하는 책 모임이다. 이들은 2018년부터 책과 문장을 소개하는 온라인 북큐레이션 콘텐츠를 네이버 포스트(도서발굴단)와 인스타그램(고양시 도서관센터)에 게시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는 별도 검색 없이 도서발굴단의 콘텐츠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월 2회 금요일 오전 8시에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는 사서가 직접 읽고 책을 추천하는 '사서가 지난달 읽은 책'과 사서가 읽고 싶은 책과 문장을 소개하는 '사서의 위시리스트'를 보낸다.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는 이슈와 책을 연결하거나, 숨은 책과 공간을 소개하는 '월간 발굴 B'와 '구독자 참여 콘텐츠'를 제공한다.

한영기기자



수원시, 21개 적극행정 사례 수록한 우수사례집 발간

호출비·중개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 전국 지자체 최초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으로 생활폐기물 감축... 수원시가 올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한 사업·정책들이다. 수원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 '세상을 바꾸는 힘,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2'를 발간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2'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호출앱 수원e택시', '홍등 꺼지는 거리... 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 등 21개 적극행정 사례가 수록됐다.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는 수원시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으로 택배를 배송할 때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종이·스티로폼 박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이스팩은 재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가 2021년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한 '호출비·중개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으로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자동결제·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정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

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18개를 수록한 첫 번째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최정근기자



성남시,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판교일자리센터 개소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플랫폼 구축

성남시는 판교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고, 청년층 구직자들의 성장과 취업을 도울 판교일자리센터를 7월 1일 개소했다. 판교일자리센터는 판교역 연결 지하도로에 교육장, AI/VR룸, 상담실 등을 갖춘 178㎡(64평) 규모로 마련됐다. 판교일자리센터에는 8명의 전문직업상담사가 상주해 청년층 구직자들의 성장과 취업을 돕는다. 취업준비에 필요한 상담부터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비대면 취업컨설팅 랜선잡카페, AI 및 VR 면접체험을 지원한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세미나실 공간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IT산업 인제뱅크, 신중년 생애경력 주치의 등을 통해 전문인력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현장채용박람회를 판교일자리센터 앞 지하광장에서 개최한다. 엔씨소프트, 티맥스소프트, 이오플로우 등 30개사가 구인 기업으로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 기업들과 연계해 청년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판교특강 직무멘토링 등 판교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맞춤

형 채용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플랫폼이 구축돼 취업성공을 도모하는 청년취업의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성용기자



의정부시, 바둑 페스티벌 공모전 개최

의정부시는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 바둑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 일러스트, 홍보영상, 마스콧 캐릭터 등 4개 분야로 진행되며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포스터 부문 대상에 200만 원의 우승상금과 의정부시장 상장이 수여되고 대상을 비롯한 수상 작품들은 공식 홍보 포스터로 사용된다. 일러스트와 홍보영상 부문 대상에는 각각 3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캐릭터 부문 대상 작품에는 4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바둑 페스티벌 전시와 함께 바둑TV, 바둑 온라인에 활용되며 캐릭터는 한국기원 공식 캐릭터로 사용된다. 접수는 7월 23일 오후 6시까지며, 발표 및 시상식은 바둑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9월 중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입상자들에게 개별 연락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2023년 한국기원 이전 건립을 기점으로 생활체육으로 바둑을 활성화하고 의정부시를 바둑 스포츠 도시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을 오는 9월 25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시흥시, 아동권리지킴이 및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위촉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

시흥시는 1일 아동권리 옹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및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제찬 부시장이 위촉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동권리 옹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로는 백종은 시흥시 시민호민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의 김승현 소장이 위촉됐다. 아동권리지킴이는 앞으로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제도·사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제시 등을 통해

관내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8명이 활동 중인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위촉된 강사들은 앞으로 아동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게 된다. 이날 연제찬 부시장은 "아동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정부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羅州)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거제시, 16전 17기! 애물단지'의 변신...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각종 규제 완화로 민간사업자 투자 기피 등 16회 공개매각 유찰

16년 동안 팔리지 않아 거제시민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보물단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거제시가 지난 2004년 조성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명승 제2호인 거제 해금강, 바람의 언덕, 신선대 등이 인접해 있는 천혜의 명소에 도 불구, 그동안 16차례의 공개입찰에서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유찰이 거듭됐다.

그러나, 변광용 시장의 취임 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거제시는 2018년 10월 해금강 부지 매각 전담부서를 새로 지정하고 투자유치팀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유찰의 원인을 분석하고 투자 유인책 등 성공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2018년 12월에는 매각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매각금액 납부 방법을

개선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바꿨다.

변 시장은 2019년 7월 3일 개최된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민간투자 촉진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상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성과는 곧 나타났다. 거제시는 투자자 찾기에 나선 지 16년 만인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인 해금강(주) (대표 박재복)과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에 대한 140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해금강(주)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약 42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층 이하의 관광숙박시설 387실과 휴양·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거제해금강이라는

독보적인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대표 관광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거제시는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부지의 용도지구를 '거제해금강 2지구 개발진흥지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4월 22일 지형도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순조로운 관련절차 이행에 따라 거제시는 올해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연말 경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

해금강 마을 주민 A씨는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민간투자가 성공한 만큼 남부권 체류형 관광시설이 조속히 조성되어 거제관광의 요충지였던 거제해금강의 옛 명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 광역교통망 구축은 거제의 미래비전과 투자환경의 대전환점이 되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표류하던 숙원사업이 성사된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힐링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고성 한달살이 실시

생활하며 관광하기 좋은 체류형 관광사업

고성군은 7월 5일부터 고성 한달살이 사업에 선정된 참가자를 37개 팀 59명을 대상으로 고성 한달살이를 실시한다.

고성 한달살이는 최소 2박 3일에서 최대 29박 30일까지 생활과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장기체류형 관광사업이다.

특히 이번 한달살이는 고성관광과 자녀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고성 교육지원청의 교환학습 과정을 결합하여 추진하며, 3팀이 자녀교육과 관광을 병행하여 고성 한달살이에 참가한다.

또한 타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

하는 위케이션을 즐기고 싶은 참가자, 미취학 자녀의 다양한 체험을 위하여 체류형 관광을 신청한 참가자, 퇴직 후 귀농·귀촌에 적합한 지역을 찾고 있는 참가자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달살이 참가자의 체류형 관광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생활하며 관광하기 좋은 고성, 많은 관광객이 즐기며 여행할 수 있는 고성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해양자연사박물관, 7월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 '붉은바다거북' 선정

붉은바다거북, 바다거북 중 제일 넓은 지역 분포...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7월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으로 '붉은바다거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 제일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연안에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에는 영덕군 축산항 인근 폐그물에 걸려 표류 중인 붉은바다거북이 한 어선에 의해 발견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가관인 장생포고래박물관으로 옮겨진 바 있다.

붉은바다거북은 주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파리 등을 먹는 잡식동물로, 머리 부분과 등딱지는 대개 적갈색이고 배 부분은 밝은 노란색이다. 수명은 47~67년 정도이며, 번식이 가능한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는 보통 17~33년이 걸려 성적인 성숙이 매우 늦은 편이다. 이러한 생태적 특징은 붉은바다거북을 보호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붉은바다거북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대개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이다. 최근 영덕군 사래처리 폐

어구 등에 의한 '얽힘'이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삼킴' 문제, 인공조명으로 인한 번식방해, 부화한 새끼들의 경로 혼란, 각종 개발로 인한 번식지 및 서식지 감소 등은 붉은바다거북의 급격한 개체 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붉은바다거북을 비롯해 모든 바다거북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해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정희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은 "지구생태계 속의 한 종으로서 인간이 다양한 생물과 조화롭게 공존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해양생물의 보존 및 보호는 작은 관심과 그 생물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을 선정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진주형 배달앱, 진주사랑상품권 연계 이벤트 진행

배달의 진주, 땡땡 쓰면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당첨 기회

진주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지원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진주형 배달앱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진주형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와 '땡땡'에서 진행된다. 첫 번째 이벤트로 선착순 4,000명에게 5,000원권의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벤트로는 진주형 배달앱을 이용해 최대 주문한 고객과 최고액을 결제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한다. 배달의 진주와 땡땡에서의 주문 내역을 합산해 1개월간 누적 최대 주문고객 20명과 누적 최고액 결제 고객 20명에게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20만원권을 증정한다.

세 번째 이벤트로는 배달의 진주와 땡땡에서 2만원 이상 주문 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인증샷을 올린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1등에게는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100만원 권을, 2등(3명)에게는 50만원 권을, 3등(10명)에게

는 30만원 권, 참여상(145명)에는 3만원권을 증정한다.

상품권은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면 당첨자 공지 후 지급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로페이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진주시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결제를 지원한다. 가맹점에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진주형 배달앱에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12,000여 개의 오프라인 가맹점이 있으며, 올해 6월까지 130여원을 발행하였고 지난 7월 1일 60억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했다.

한편, 진주형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 2%의 착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는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민관 협력 배달앱으로 지난 4월 8일 출시되어 현재 약 1,000여 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다.

최광용기자

산청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역사탐방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남사에담촌 찾아...8·10·11월 참여자 모집

산청문화원은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의 하나로 '우리동네 역사여행' 프로그램은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산청문화원의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산청군이 후원하는 역사탐방 지원사업이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엔 진행한 우리동네 역사여행은 남사에담촌 역사문화탐방으로 구성, 산청문화원 단정현문교실 회원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오는

8월 기산국악당 국악여행, 10월 '적벽읍성시집' 감상 및 적벽산 일대 답사, 11월 문인점 선생 묘소 참배 및 목화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산청문화원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관련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이효근 원장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사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미처 내 고장에 대해 잘 몰랐던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김해시, 특화거리에 '웰컴로42길' 명예도로명 부여

김해시는 법정문화도시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존'과 '환대'의 가치를 담은 특화거리에 '웰컴로 42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현 정부 최대 지역문화진흥사업으로, 앞서 김해시는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로써 김해시는 역사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수로왕릉 일원과 동상동 외국인 거리를 연결하여 낙후된 구 도심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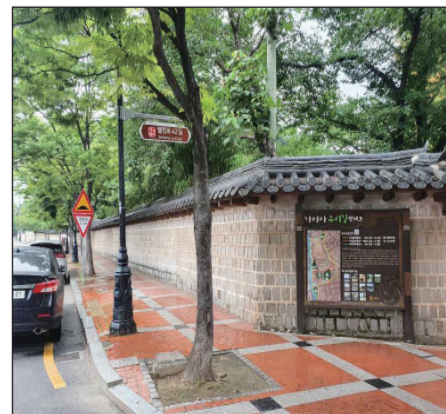
시는 경남도 유일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를 기념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김해도서관·수로왕릉·분성광장을 연결하는 특화거리에 명예도로명 '웰컴로42길'을 부여하고, 문화도시 지정과 명예도로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웰컴로42길'에서 '웰컴'은 모든 이

들이 차별없이 교류하는 열린 공간을 의미하며, '42'는 가야건국 2천년이 되는 2042년과 우리말 '사이'의 뜻을 담아 가야로부터 이어져오는 '공존'과 '환대'의 가치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시의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급변 특화거리에 명예도로명 부여를 시작으로 하여 시민들과 함께 진정한 문화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제로페이 X 배달의 진주 X 땡땡

진주형 배달앱 EVENT

기간 2021.07.01 ~ 07.31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주문하면 할인과 경품이 가득!

EVENT 1 5,000원 할인쿠폰

- 1일 1회 5,000원 할인쿠폰 제공
- 진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시 사용 가능
- * 수령 한정으로 초기 소진 가능 (1개월간 4,000명 제한)

EVENT 2 최다, 최고 이용자 경품 제공

-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최대, 최고액 결제한 각 20명에게 경품 발송
- 경품 : 진주사랑상품권 20만원

EVENT 3 인증샷 이벤트

-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 후 SNS에 사진 인증 > 이벤트 참여 신청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 참여 신청 링크 (<http://naver.me/xbwjrRo>)
- 경품 : 진주사랑상품권
- 1등 (1명) 1,000,000원, 2등 (3명) 500,000원, 3등 (10명) 300,000원, 참여상 (145명) 30,000원
- * 참여상 인원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품 발송일 : 2021.08.17(예정) * 모바일상품권 공지사항을 통해 당첨사실 공지

고창 멜론·망콩, 2021년 소비자가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수상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수상, 고창멜론 5년 연속, 고창망콩 4년 연속 쾌거

달콤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고창 멜론, 고소한 식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창망콩이 전국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1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의 멜론과 망콩이 지역 농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멜론은 5년 연속, 망콩은 4년 연속 수상으로 '한반도 농생명 수도'의 가치를 드높였다.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품목에 수여된다. '고창멜론'은 미네랄과 원적외선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며 안정된 재배기술과 많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다. 또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직거래 재구매율이 80%가 넘는 농가도 있을 정도다. 그만큼

고창 멜론을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는다.

특히 2년 연속 온라인 경매 210만 원의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수출을 추진해 해외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고창 멜론재배농가들도 고창멜론연합회(2019년 결성)를 활성화하고 품질의 상향평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고창망콩'(재배면적 400ha)은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며,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고소한 맛과 선명한 표피 색깔로 국산 망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농특산물 대표주자만 선정되는 청와대 추석명절세트에 '고창 생알망콩'이 이름을 올렸다.

고창군은 망콩 특화단지를 만들어 재배기술, 토양·비료관리, 파종법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신제품(신팔광, 다안, 흑생, 케이슬) 종자 공급을 통해 상품성을 높였고, 연중 병해충 중점관리를 통해 생산



성 향상과 품질 균일화 유지에 힘쓰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 노력이 가득 담긴 고창 멜론과 망콩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겠다"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고창 멜론과 망콩을 천하제일의 농특산품으로 육성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 본선 성료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창업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 본선을 열고 결선에 진출할 17개 팀을 선정했다.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 본선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25개 전국 각지의 예비창업팀이 참여해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와 기타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융합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경연으로, 참가팀의 창업역량, 기술성 등을 평가했다. 경진대회 본선 진출팀은 사전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본선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네이버, SK, LG 등 국내의 기업과의 상담,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모델을 수정·보완하며 대회에 참여했다.

예비창업팀의 한 참가자는 "팀에서 나름 잘 준비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와 대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으로 부족한 점을 보

완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보다 개선된 사업모델로 최종 10개팀에 선정돼 창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상 의지를 전했다.

이번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 본선을 통과한 17개 예비창업 팀에는 인공지능 관련 수요기업과의 상담을 지원하고 결선을 통해 선정된 최종 10개 팀에는 실제 창업을 조건으로 총 5억원의 인공지능 (시)제품·서비스 제작비용이 지원된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조성사업의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이 될 창업기업 발굴이 목표"라며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인공지능 창업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 결선은 오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덕윤기자



보성군, 특색 있는 청사 만들기 벌교읍은 '태백산맥'

소셜 태백산맥과 벌교교막으로 유명한 보성군이 벌교읍행정복지센터에 태백산맥을 형상화한 넉줄식물 터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벌교읍 행정복지센터는 보성군 특색 있는 읍·면청사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센터 진입로 2개소에 조롱박, 넉줄장미, 애플수박, 하늘마, 작두콩 등 넉줄식물을 심어 터널을 조성하고 있다.

이 터널에는 태백산맥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터널을 녹색체험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에는 자연친화적인 트리와 조명장식을 설치해 편안하고 아름다운 청사 이미지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선남규 벌교읍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을 누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광양 배알도, 낭만 흐르는 '섬 정원'으로의 초대

안전 안내판 설치 등 최종 마무리 거쳐 7월 중 공식 개방 예정

광양시가 배알도를 낭만이 흐르는 섬 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배알도에 전석을 쌓아 호안을 정비하고, 접근이 어려웠던 구간을 나무데크로 연결해 섬 전체를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보행용 야자매트를 깔고 작약, 수국 등 계절 따라 피어나는 화초류를 식재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 정원을 완성했다.

아기자기한 꽃밭이 있는 섬 앞마당은 '배알도'라는 빨간색 명칭 조형물을 세워 조롱 잔디와 보색대비를 극대화하고, 군데군데 벤치를 놓아 여백 있는 쉼터로 변모시켰다.

시는 안전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최종 마무리를 거쳐 7월 중 공식 개방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엔 '배알도-망덕포구' 현수교식 해상보도교를 개통하고, 망덕산-배알도 근린공원을 잇는 4개 쉼터인도 올해 안으로 완공해 액티

비티 공간을 완성할 계획이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광양 유일의 섬으로 남은 배알도는 해상보도교를 통해 쉽게 닿을 수 있는 바다 위 정원으로,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하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낭만 쉼터이다"고 말했다.

이어 "망덕포구를 잇는 현수교식 해상보도교와 쉼터, 모노레일 등을 조속히 완공해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도(蛇島), 뱀섬이라고 불

렀던 배알도는 태인동 가장 북쪽이자 섬진강 하구에 있는 바위섬(0.8ha, 높이 25m)으로, 망덕산의 천자를 배알하는 천자봉(天子奉窟)의 명당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2019년 7월 '배알도 근린공원-배알도' 해상보도교 개통 이후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배알도 섬 정원 조성사업'으로 출입이 제한됐다.

조기석기자



전남도, '휴가철 관광지 방역수칙 꼭 지켜주세요'

전라남도 2일 순천시와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관광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 도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순천시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휴가철 방역수칙 실천 사항을 알리고, 현장 방역 경각심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역마스크(KF94), 손세정제 등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열사람과 거리두기 등 핵심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 식당카페, 유숙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상황도 점검했다.

노영환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사적모임, 식당, 유흥시설 등을 통한 확산사태가 이어지고,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도민 뿐만 아니라 전남을 찾는 관광객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괴산군,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 캐릭터 디자인 공모 수상작 선정



충북 괴산군은 2일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11점(대상 1점, 인기상 10점)을 발표했다.

군은 괴산군 대표 농·특산물인 괴산대학찰옥수수와 2022년부터 새로 개최되는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캐릭터 디자인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104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 캐릭터 디자인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아이디어 활용성 △디자인 적합성 △작품의 예술성 △독창성 △작품의 완성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대상은 김강민씨(괴산대학찰옥수수와 찰달이)가 선정됐으며, 인기상은 △민은기씨(무제) △김지현씨(옥이) △진선경씨(코니) △엄종섭씨(무제) △김재효씨(옥동이와 옥이) △신진우씨(찰옥이와 코니) △강병현씨(옥수송) △김지유씨(대옥이) △석동연씨(무제) △유보영씨(옥

산이) 등 11명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인기상 10명은 각 20만원 상당의 괴산군 유기농·특산물 꾸러미가 주어진다.

자세한 수상 결과는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선정된 작품들을 향후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 각종 홍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연 문화체육관광과장은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 캐릭터 디자인 공모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캐릭터를 신규 축제에 다양하게 활용해 축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2022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 범엽 조성을 위하여 다가오는 7월 24일~25일 이틀간 괴산대학찰옥수수 체험 홀리데이를 진행해 괴산 곳곳에서 △옥수수 미로 △옥수수 수확체험 △괴산관광투어와 함께하는 옥수수 테마체험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양양군,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생활체육으로 지켜요!

양양군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음껏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어르신들은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상 속에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체육은 활발한 신체 활동과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주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세 가지를 소개한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게이트볼은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즐기는 국민 생활체육이라고 한다. T자형 스틱으로 열 개의 공을 쳐서 경기장 내 3곳의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해 골문에 맞는 경기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영국에서는 '크로케'로 불리며, 국내에는 1980년대에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인기가 꾸준하다.

우리 군에서는 6개 읍면을 비롯해 강원면 강선리까지 모두 7곳의 전용 구장에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양군 게이트볼연합회 산하 주소에 따라 7개의 클럽에서 122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게이트의 각도를 고려해서 어느 게이트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공의 위치 등을 결정하는 하는 등 기술과 판단력,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육체는 물론 두뇌운동까지 필요하다.

5명이 한 팀이 되는 단체전으로 팀마다 전략과 전술을 이끄는 주장이 따로 있으며, 화합하고 단결해야 하는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원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장점이 있다.

양양군 게이트볼연합회 박상귀 회장은 "게이트볼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자기자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듯 수를 읽고 전략

과 전술이 필요하고, 팀원들끼리 팀워크가 중요해서 풀뚝 뚫쳐야 해요. 제가 7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려워요.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은데, 머리를 써야 하니 전략을 짜는 묘미가 있어요. 게이트볼을 어르신들만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청년, 중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게이트볼의 매력력을 전했다.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를 변형하여 만든 운동 중 하나로, 골프채로 지면에 공을 굴리거나 쳐서 홀에 넣는 경기이다. 기존 골프와 달리 공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굴리기에 힘도 덜 들고 허리 회전도 적어 신체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큰 규칙은 골프와 크게 다르지 않고, 마치처럼 되어있는 골프채를 이용하여 공을 쳐서 홀 안으로 넣으면 된다. 코스는 8홀로 구성되어 있고 홀에 넣기까지 몇 타수가 걸렸는지 비교하여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한다.

일본에서 생활체육으로 창안되어 국내에는 1993년에 전해졌으며, 일반 골프보다 경제적이고 좁은 장소에서도 상황에 맞게 코스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양군은 2012년에 다소 늦게 그라운드 골프협회가 창립되었으나, 빠르게 성장해 현재 6개 읍면 모두에서 클럽을 운영하여 170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현면과 서면에는 전용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양양읍은 남대천 둔치 경기장, 손양면은 공항공장, 그 외에는 게이트볼장에서 시간대를 정해놓고 함께 사용하고 있어 클럽별로 시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최장 거리가 50미터로 짧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관절도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픈 어르신들도

그라운드 골프를 통해서 가볍게 걸으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40대부터 90대까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하는 경우도 많다. 일주일에 3일, 30분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자는 스포츠 7330 운동을 확산시키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양군 그라운드골프협회 김태상 회장은 "그라운드 골프는 과격하지 않아서 건강관리 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저도 원래 일반 골프를 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여건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를 시작하게 된 분들이 많이 있고요. 개인전이기에 운동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회원 중에는 89세에 대해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고, 공치고 걷고 하다 보니 운동하는 일이 재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7월 8일 협회장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된 것으로 도심 속 공원 등에서 즐길 수 있다.

용어, 매너, 규칙 등이 일반 골프와 거의 비슷하고, 코스는 연못 해저드 같은 위험한 코스 없이 축소되어 있으며 골프채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점이 특징이다. 나무로 된 채로 나무 공을 치기 때문에 장타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최대 비거리가 50~70m에 이를 정도로 운동량은 적지 않다.

일본에서 시작돼 1998년도에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양양군 파크골프협회는 2012년에 결성된 이후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재 정회원 2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반 골프와 파크 골프를 같이 치는 이들도 있고, 아예 파크 골프로 전향하는 회원들도 많다. 골프보다 경제적이고, 혼자 하거나 팀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정에 맞춰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회원들의 연령층은 50대부터 80대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송이조각공원 내에 18홀로 사용하던 파크골프장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 날이 밝아 오는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회원들부터 날이 저무는 저녁 8시까지 회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한 번에 20~30명 정도가 함께 운동하며, 하루에 150명 정도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7월 초 송이조각공원 내에 신설된 27홀의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개장할 예정이다 파크골프의 인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 파크골프협회 홍순봉 회장은 "파크 골프만큼 시간 보내기 좋은 운동이 없어요. 공 하나에 골프채 하나만 들고 언제든 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칠 때마다 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보통 7-8천보 정도의 걸음을 걷습니다. 걸으면 서 답소도 나눌 수 있어서 여가생활로 아주 좋습니다. 최고 거리와 최단 거리를 골프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이 크기 때문에 휘두르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량이 적지 않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기본교육을 받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 운동하며 심리적 해방감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라며 파크골프를 적극 추천했다.

최재은기자



홍성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위한 올바른 신고방법 홍보

홍성소방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올바른 신고방법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는 당황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제대로 된 상황 설명을 하지 못해 재난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를 할 때는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유형 ▲주변 건물·주소·방향 등 최대한 현재 상황과 정확한 위치를 짐작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의 경우 연기나 불꽃 색깔, 화재

가 발생한 층수 등을 말하는 것도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동하지 않고 정확한 주소로 신고해야 하며, 정확한 사고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위치를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진규 대응예방과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최초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 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주소 모를 때에는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의 상호 및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국가지정번호(산악위치), 전봇대 번호, 고속도로 이정표 숫자를 불러주시고, 스마트폰 GPS는 꼭 켜주세요.

세종시설공단, 지하공동구 '안전사고예방시스템' 특허 취득

IoT 진동감지센서를 활용한 안전사고예방시스템 특허 성과달성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에서 시행한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 성과로 'IoT진동센서를 활용한 안전사고예방시스템' 특허를 민·관 협업을 통해 취득했다고 밝혔다.

본 특허는 환경(진동, 온도, 습도, 영상)데이터 측정 및 AI 학습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예측 가능한 안전사고예방시스템 특허로 공단과 민간 기업이 과기부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2년간의 기술개발기간을 거쳐 공동특허 취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공단은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한 혁신시제품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한 IoT센서 및 인공지능 고도화 추진과 동시에 향후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으로 4차 산업 선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계용준 이사장은 "향후 특허 기술 협약을 통해 기업 매출의 일부가 공단 수입이 되는 민·관 협력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시설관리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천안시, 성환 개구리참외 본격 출하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성환 지역의 특산물인 개구리참외가 올해 출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개구리참외는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맛볼 수 있는 100년 전통의 재래종 과일로, 외형과 과피색이 개구리를 닮은 특이한 형태를 가져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보통의 참외보다 단맛은 적지만 특유의 향이 좋고 과육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 함량이 풍부해 이뇨, 숙취,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적인 기능성 참외로 알려져 있다.

개구리참외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생과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미시기에 갈아 생과일주스로 마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초기 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구입을 원하는 소비

자는 서둘러야 맛볼 수 있다.

성환 지역의 특산물 개구리참외는 천안시 배원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개구리참외 재배 농가의 안정적 재배기술 정착과 소비확대를 위해 농가와 연계한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재배 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동해시,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커' #함께해요 주문챌린지# 성료

동해시는 배달앱 '일단시커'의 성공적 시장 안착과 성장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된 #함께해요 주문챌린지# 릴레이는 종료됐으나, 관내 공공기관 등 70여 개소에 이용 협조문서 발송과 시 자체 제작한 홍보배너 1,800개를 관내 숙박업소에 배포해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펼쳐 나가는 등 향후 소비자 이용 확대와 가맹점 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현재 동해시 내 '일단시커' 가맹점은 250여개, 주문건수는 1,400건 주문액은 3,500여만원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착한 배달앱으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1호 챌린지 '심규연 동해시장'을 시작으로 (㈜쌍용동해공장, GS동해전력,

이등원기자

김천상무, '이달의 감독상' 김태완 감독 "전승 비결은 선수들 덕분"

6월 이달의 감독상으로 선정된 김천상무 김태완 감독이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배낙호) 김태완 감독이 6월 이달의 감독상으로 선정됐다. 김태완 감독이 이끄는 김천상무는 6월 네 경기에서 전승을 달성하며 승점 12점을 쌓았다.

김태완 감독은 "계속 승리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코칭스태프를 비롯해 지원스태프, 구단 프런트 등 주변 모든 분들이 함께 힘써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잘하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천은 6월 모든 경기에서 선수단 라인업의 큰 변화 없이 경기에 임했다. 3톱은 허용준-박동진-정재희

가 꾸준히 맡았고 2선은 정현철(정원진)-권혁규-강지훈이 책임졌다. 4백라인 역시 심상민(유인수)-정승현-우주성-김용환이 맡았다. 정현철, 심상민이 두 경기를 소화하고 정원진, 유인수가 나머지 두 경기를 출전한 것을 제외하면 네 경기에서 완전히 동일한 라인업으로 상대에 맞서 승리했다.

선수단에 대해 신뢰를 보인 김태완 감독은 "많은 선수들을 교체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한 것이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처음에는 K리그2 우승을 목표로 해서 다소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을 바꾸고 과정에 충실했던 것이 결과까지 가져오는 데 주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천은 오는 3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1' 19R 대전하나시티즌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김태완 감독은 "대전이 4위지만 승점 차이가 2점에 불과하다.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매 경기 겸손하게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세기기자

용인시, 콜센터 직원 전원 정규직 전환

지난 2018년부터 정규직 전환 추진...목표치 초과 달성

용인시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시는 1일 콜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25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지난달 정규직으로 공개 채용한 1명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시 콜센터는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 계획안에 맞춰 첫해는 기간제 근로자 108명을, 지난 2019년에는 파견·용역 근로자 1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매년 정규직 전환에 앞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 시기, 임금, 정년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콜센터 근로자는 공무원 근로자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이날 백근기 시장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용인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22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날 기준 총 26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목표치치를 초과 달성했다.

최정부기자

제천시, '강은순 제천 산아래 대표' 대한민국장류 발효대전 대상 수상

제천시는 제천의 유기농 한식전문점 '산아래' 대표인 강은순 요리연구가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에서 된장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개최한 장류발효대전은 한국장류발효인협회 주최하고 국회와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하며, 전통장류발효식품인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은 물론 전통장을 활용한 응용 장류장인을 선발하는 국내 유일한 장류 소스 경연대회이다.

이날 강은순 요리연구가는 장

류 발효소스 맛집 경연 일반부 단제전에서 수상을 했으며, 2014년 충청북도 '밤맛 좋은 집' 선정, 2018·2019년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금상과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대내외로 인정을 받고 있다.

강은순 대표는 "약초의 고장 제천의 대표약재인 황기를 이용한 우렁참장과 된장을 만들어 이번 대회에 출품해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미식도시제천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만식기자



안성시 (재)퍼시스 목훈재단, 안성시에 장학금 전달



지난 1일, (재)퍼시스 목훈재단에서 안성시에 60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주)퍼시스 배상돈 대표이사, 오종찬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장학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 (재)퍼시스 목훈재단은 안성 소재 고등학생 중 시의 협조를 통해 선발된 5명의 학생에게 연간 12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꾸준히 기부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 퍼시스처럼 기업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다른 시민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며 장학금 기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는 아이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퍼시스 목훈재단은 2003년부터 162명의 안성 학생들에게 총 2억8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원종균기자



구로구, 마을돌봄조정관 임명장 수여식 개최

구로구가 마을돌봄조정관 임명장 수여식을 지난달 30일 구청에서 진행했다.

구로구는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을 마을돌봄조정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 대상자는 박은성 개봉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과 송은주 구로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 2명이다.

마을돌봄조정관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동 단위의 돌봄기관 수요를

파악하고 아동과 기관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과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발굴·연계 등을 위해 권역별 돌봄협의체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 구청장은 "마을돌봄조정관으로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구청도 관내 돌봄기관 확충,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봉담자이 라피네

화순군, “미래 성장 엔진 업그레이드...K-바이오 거점 조성”

백신·바이오산업 육성...농업·관광 경쟁력 강화



화순군은 민선 7기 들어 백신·바이오·첨단의료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며 백신과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구준곤 화순군수는 “민선 7기 3년간 백신, 바이오 분야의 대규모 국책 연구·지원기관을 잇따라 유치해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성장 잠재력을 키웠다”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가 유치, 미래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해 K-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성공적인 감염병·민생·경제 방역 ▲백신·바이오 분야 국책 사업 유치와 3000억대 공모사업 선정 ▲예산 7000억 시대 개막 ▲생활SOC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전·교통·교육복지 등 보편복지 확대 ▲전남 최초 3대 친화도시 인증 등을 민선 7기 3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바지했다. 세계거석테마파크와 고인돌 캠핑장 완공, 도곡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 산림관광 자원 확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다졌다.

화순군은 풍부한 산림, 역사문화, 농촌체험과 먹거리 등 관광자원을 연계해 화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비대면 등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행복 1번지 화순’ 실현을 목표로 보편 복지를 확대했다.

민선 7기 들어 교육·체육복비를 지원해 광주·전남 최초로 3대 무상 교육을 실현한 화순군 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복지 모델을 꼽힌다.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임산부·영유아·다문화가정·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한 ‘맘 편한 100원 택시’ 운행, 1000원 버스 운행,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확대 운영 등 체감도 높은 교통복지 시책도 호평 받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곳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군민생활 안전보함에 가입해 안전망을 마련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주목받는 시책이다.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꾀했다. 올해 기준 159여 명을 투입, 4925명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적 복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 전남 최초로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하고 3대 친화도시 조성에 본격 나섰다.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규모 증가, 살뜰한 재정 운용으로 역점 사업과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다. 2017년 약 479억이던 국비 확보 규모는 2018년부터 700~800억대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8개 사업 872억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민선 7기 3년간 총사업비 3017억 규모의 154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규모가 늘어나면서 2019년 예산 7000억 시대를 열었고 2020년 최종 예산은 7638억이었다.

구 군수는 “3년 성과를 바탕으로 백신·바이오산업, 농축산업, 문화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도농상생·균형 발전 모델과 우리 지역의 든든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부산 최초로 중기부 예비유니콘기업으로 선정!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 기업 최대 100억 이내 보증 지원

부산시는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K-유니콘프로젝트' 사업에 부산에서 최종으로 3개의 창업기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중기부 'K-유니콘프로젝트'는 기업가치 1,000억 이상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기업가치 1,000억 이하의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으로 나뉘는데 최종 선정된 기업은 각각 최대 100억 이내 특별보증 지원과 시장개척자금 3억원을 지원받으며, 보증, 정책자금, 기술개발(R&D)도 신청 시 우대 받을 수 있다.

부산의 ①㈜소셜핀(대표 김학수)은 인플루언서 기반 비대면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을 창업하여 포브스 2030 파워리더 선정, 누적투자 165억원이라는 성과를 올리

며 '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21년 에이스스텔라 육성 지원사업으로 ㈜소셜핀을 지원하였으며, ㈜소셜핀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243% 증가하였고, 2018년말 고용인원 13명 대비 현재 138명으로 2년만에 10배이상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향후 부산의 첫 유니콘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메드파크(대표 박정복)는 2017년 법인을 설립하여 골이식재 및 치과기자재 기술로 누적투자 122억, 매출액 54억, 고용인원 70명('20년 기준)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③㈜셰어트리츠(대표 이홍배)는 2017년 창업하여 동남아 대상 현지창업

모바일 기프트콘 서비스로 누적투자 54억, 월 거래건수 100만건 이상, 월 거래액 4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명의 성과 달성으로 각각 '21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메드파크에 '19년 부산형히든챔피언, '19년 밀리언클럽 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셰어트리츠에 '19년 선택 1인 창조기업 입주를 지원하는 등 차세대 지역 유니콘기업 발굴 및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간 부산시의 창업지원사업으로 축적된 창업지원 인프라와 창업수요자 중심의 체계화된 지원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들이 향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를 기대한다.”라며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공간지원, 자금지원, 성장프로그램 확대 등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경기도, 올해부터 아스팔트 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로 품질관리 강화한다

경기도, 아스팔트 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 도입 추진

올해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의무적으로 동영상으로 남겨야 된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김으로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상당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하며 100°C~150°C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아스팔트재료가 충분히 결합되지 어려워 도로포장의 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포장수명이 줄어들어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로, 올해는 제포장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온도관리가 보다 정확히 이루어져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손 없이 오래가고 안전한 경기도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남양주시, 이커머스 위메프와 협업해 판촉 기획전 오픈

남양주시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위메프와 함께 준비한 프로모션 '슬기로운 쇼핑생활 in 남양주' 기획전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쇼핑생활 in 남양주' 기획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홍보하고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남양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을 남양주시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만 원까지 10%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남양주시 이순덕 산업경제국장은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 시 중소기업들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슬기로운 쇼핑생활 in 남양주' 기획전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시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슬기로운 쇼핑생활 in 남양주' 기획전은 식품, 가공식품, 리빙, 생활용품, 홈 데코, 가구, 가정 전자제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며, 위메프 홈페이지 내 생생마켓 매뉴에서 '슬기로운 쇼핑생활 in 남양주'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임차료 지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6조원 공급

정부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범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고, 기존 영업제한 임차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원을 편성하고, 폐업지원금 50만원 지원(406억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를 1,000억원 확대(5,000억원 → 6,000억원) 했다.③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첫·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배송지원 등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해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60억원)해 소비자 유입 촉진을 통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④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0.3조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도·별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으며,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②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장에서 매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용자'

최광수기자



